

---

금융시장 신뢰성 제고를 위한

# 「지표금리 개편방안」

---

2026. 3. 30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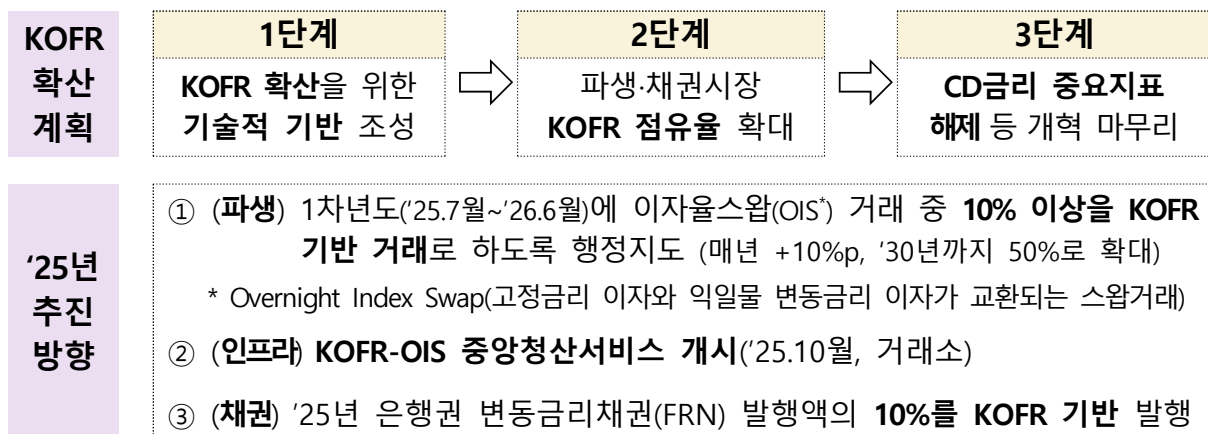
관계기관 합동

# 목 차

I. 추진 경과 .....	1
II. 지표금리 활용 현황 및 평가 .....	2
1. 지표금리 활용 현황 .....	2
2. 평가 .....	3
III. 지표금리 개편 방안 .....	5
1. 다양한 금융시장에서 KOFR 활성화 가속화 .....	6
2. CD금리는 법상 중요지표에서 지정 해제 .....	7
3. 코리보 사용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 .....	8
4. 코픽스에 대한 산출체계 점검을 선제적 강화 .....	8
IV. 향후 계획 .....	9
참고1. 주요국 지표금리 개혁 경과 및 활용 현황 .....	10
참고2. 국내 주요 지표금리 비교 .....	11

## I. 추진 경과

- LIBOR 조작 사건\*을 계기로 지표금리 개혁\*\*이 세계적으로 추진
  - \* '12.6월, LIBOR 호가 제출은행들의 조작 적발 → '22.1월~'23.7월 순차적 리보 산출 중지
  - \*\* 1)호가기반 금리를 실거래 기반으로 개선, 2)무위험지표금리(RFR, Risk-Free Rate) 개발  
→ LIBOR 산출 중단에 따라 美·英 등은 RFR 단일지표체제로 이행(EU·日은 복수지표)
- LIBOR와 산출체계(호가 중심)가 유사한 국내 지표금리(예: CD 금리, 코리보 등)에 대한 개편 필요성 제기
- 우리나라도 지표금리의 글로벌 정합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「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\*」 제정('20.11월 시행)
  - \* ①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리를 중요지표로 지정하고, 중요지표 산출기관을 지정(KOFR→예탁원, CD 3개월물 금리→금투협), ②조작행위 금지 의무 및 위반시 처벌
- 한국형 무위험지표금리로 KOFR\*를 선정하고, 법상 중요지표로 지정('21.9월) 및 산출 개시('21.11월)
  - \* 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: 국채·통안채 담보 익일물 RP 금리
- CD금리는 사용규모 등을 감안시 단기간내 폐지가 불가능하여 산출절차를 개선한 이후 중요지표로 지정('23.10월 지정효력 발생)
- 관계기관 합동 지표금리 개편 추진체계\* 마련('23.6월~)
  - \* 지표금리·단기금융시장 협의회 운영(금융위, 한은, 금감원, 협회, 은행증권 연구기관 등)
- KOFR 사용 확대를 위한 3단계 확산 계획('24.8월)을 발표하고, 2025년 KOFR 활성화 추진방향('24.12월)을 마련



## II. 지표금리 활용 현황 및 평가

### 1 지표금리 활용 현황

□ **(KOFR)** KOFR 활성화 추진결과, 파생상품과 채권시장 중심으로 KOFR 기반 거래 및 비중이 지속 확대

○ KOFR 기반 이자율스왑(OIS) 거래규모\*는 중앙청산서비스 개시('25.10월) 등의 영향으로 '25년 하반기부터 증가

\* KOFR-OIS 거래규모(비중): '24년 0.9조원(0.02%) → '25.上 12.8조원(0.5%) → '25.下 138.6조원(4.5%) → '26.1~2월 162.7조원(11.8%)

\* KOFR-OIS는 아직 단기물(1년 이하 69.4%) 위주로 거래 (5년 초과 0.4%, '25년)

○ KOFR 기반 변동금리채권(FRN) 발행규모는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'24년 0.8조원(1.7%)에서 '25년 6.1조원(11.3%)\*으로 확대

\* 유형별 발행금액('25년, 조원): 정책금융기관(산.가.수은) 3.04, 은행권 2.75, 비은행권 0.31

□ **(CD금리)** CD금리는 파생·채권시장에서 아직 높은 비중 차지

\* CD금리 이자율스왑 거래규모(비중): '24년 5,830조원(99.1%) → '25년 5,353조원(96.2%)

\* CD금리-FRN 발행규모(비중): '24년 22.3조원(47.5%) → '25년 30.7조원(56.8%)

○ 대출시장에서도 기업대출 중심으로 CD금리가 지표금리로 사용

\* CD금리 기반 은행대출 잔액('25.12월 기준) : 총 376.3조원 [기업 319.6, 가계 25.1, 기타 29.4]

□ **(코리보)** 리보('23.7월 폐지)와 산출체계가 유사한 코리보는 기업대출 중심으로 일부 은행에서만 활용

\* 코리보 기반 은행대출 잔액('25.12월 기준) : 총 236.3조원 [기업 211.8, 가계 23.8, 기타 0.7]

□ **(코픽스)** 8개 은행의 자금조달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하는 코픽스는 가계대출 중심으로 활용

\* 코픽스 기반 은행대출 잔액('25.12월 기준) : 총 244.9조원 [기업 22.3, 가계 220.3, 기타 2.4]

## 2 평가

※ 금융권, 시장전문가, 연구기관 등 의견수렴 결과

- ◆ KOFR 확산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만큼, 정부가 금융권과 함께 **KOFR 시장 형성**을 위한 노력을 **보다 가속화**할 시점
- ◆ 산출체계상 **내재적 한계를 지닌 지표금리**(예: CD금리, 코리보)의 경우 **비중 축소**를 위해 **향후 처리방향을 명확히 발표**하는 것이 중요
- ◆ 현재 **법상 중요지표가 아닌 지표금리**(예: 코픽스)도 금융시장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**산출체계 점검을 보다 강화**할 필요

### 가. KOFR 활성화를 위한 시장형성 노력이 보다 가속화될 필요

- KOFR 도입 후 4년이 지났으나 KOFR-OIS 비중은 10% 내외에 불과한 만큼, CD금리를 KOFR로 전환하는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
  - \* 미국의 경우 OIS 시장을 무위험지표금리(美 SOFR 등) 중심으로 빠르게 개편
  - \* 국내도 중앙청산서비스 개시(25.10월)된 만큼, 향후 KOFR-OIS 비중이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
- KOFR-OIS 장기물 거래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다 확대하여 KOFR 관련 수익률곡선\* 형성 유도
  - \* KOFR-OIS는 현재 단기물 위주로 거래중이나, 향후 장기물 거래가 활성화될 경우 3년물·5년물 등 다양한 만기의 기간물 KOFR 산출이 가능(예탁원)
- 변동금리채권(FRN)의 경우 주요 선진국\*처럼 무위험지표금리가 준거금리로 활용되도록 국내시장도 초기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
  - \* 미·영, 스위스 등은 무위험지표금리가 FRN 시장의 준거금리로 조기에 정착
- 대출시장에서도 KOFR 기반 상품을 신규 도입하여 KOFR 활용기반 확산\* 및 소비자에게 다양한 상품 선택권 부여 필요
  - \* 미국, 무위험지표금리(SOFR) 기반 변동금리 대출 도입 → 헤지 차원에서 대출과 동일만기의 SOFR 선물·OIS 수요가 병행 창출 → 다양한 만기의 SOFR 기간물 산출 가능
  - \* KOFR FRN 확대와 연계하여 KOFR 대출 도입시 자금조달-운용 안정성 향상

## 나. CD금리 처리방향을 보다 명확하게 대외 공표하는 것이 중요

- CD금리가 이자율스왑 등에서 여전히 많이 활용되는 만큼, 정부의 KOFR로의 전환 의지를 시장에 명확히 발표할 필요
  - CD금리를 법상 중요지표에서 해제하는 시기를 구체적으로 대외 발표할 경우 시장참여자들의 KOFR 활용 유인 증대
    - \* 현재는 'CD금리를 향후 법상 중요지표에서 해제한다'는 방향성만 발표
    - \* USD LIBOR는 약 2년 3개월 전에 산출중단 시점(23.6월)을 명확히 시장에 표명
- CD금리 중요지표 해제시기 발표시, WGBI(세계국채지수) 편입(26.4월) 관련 유입이 예상되는 외국인 자금의 KOFR-OIS 활용 확대 기대

## 다. 시장 영향은 최소화하면서 코리보 비중 축소를 시작할 시점

- 이미 산출 중단된 LIBOR와 산출체계가 유사한 코리보의 경우 사용비중 축소를 위한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
  - 현재 코리보는 일부 은행에서만 대출 지표금리로 사용중으로 상대적으로 속도감 있게 비중 축소가 가능하다는 평가
    - \* 은행권은 시장 영향 및 고객 불편 최소화 등을 위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면서 코리보 비중 축소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정부에 건의

## 라. 주요 대출 지표금리인 코픽스의 산출체계 점검 강화 필요

- 향후 코리보·CD금리의 사용 비중이 점진적으로 축소될 경우 대출시장에서 코픽스의 활용비중이 지속 확대될 가능성
  - 코픽스의 경우 과거 몇 차례 산출오류 사례가 발생한 만큼, 코픽스의 산출체계 신뢰성을 선제적으로 제고할 필요
    - \* 향후 대출시장에서 코픽스 비중이 커질 경우 법상 중요지표 지정도 검토 필요

### Ⅲ. 지표금리 개편방안

금융시장 신뢰성 제고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 
지표금리 개혁을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

#### 1. 다양한 금융시장에서 KOFR 활성화를 가속화

- 이자율 스왑시장(OIS)에서 KOFR 거래 비중을 보다 빠르게 확대  
(전체 OIS 거래에서 KOFR 기반 거래비중을 '30년까지 50%→70%로 상향)
- KOFR 기반 변동금리채권(FRN)의 발행 목표를 신설  
(전체 FRN 발행에서 KOFR 기반 발행비중을 '31.6월까지 50%로 확대)
- KOFR 기반 대출상품 신규도입('26.下, 산·기은 총 1조원 공급 목표)

#### 2. CD금리는 법상 중요지표에서 지정 해제

- CD금리를 「금융거래지표법」상 중요지표에서 '30년말 지정 해제
- 외국인 투자자들의 KOFR 기반 거래 확대 등을 위한 해외 IR 실시

#### 3. 코리보 사용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

- 은행권의 코리보 기반 신규대출은 '27.4월부터 원칙적으로 중단
- 기존 코리보 기반 대출은 만기 연장시 대체 지표금리로 전환 유도

#### 4. 코픽스에 대한 산출체계 점검을 선제적으로 강화

- 은행연합회(산출기관), 코픽스 산출 및 승인체계에 대한 자체점검 강화
- 금감원, 은행들의 코픽스 관련 제반사항에 대해 중점 점검
- 시장내 비중 등을 보아가며 코픽스를 법상 중요지표로 지정 검토

# 1 다양한 금융시장에서 KOFR 활성화를 가속화

- 이자율스왑(OIS) 시장에서 KOFR 거래비중을 보다 빠르게 확대
  - KOFR-OIS 거래 목표비율을 매년 15%p(기존 10%p)씩 높여 '30.6월 70%(기존 50%)까지 확대('26.6월, 금감원 행정지도 개정)
    - \* 2차년도('26.7~'27.6월) KOFR-OIS 거래 목표비율을 당초 20%에서 25%로 상향
  - 만기 5년 초과 초장기물 거래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 확대

※ 금감원 행정지도(「KOFR 준거 이자율스왑 확산을 위한 협조요청」) 개정(안)

- 연차별 목표비율: (현행) 1차년도 10% → 2차년도 20% → 5차년도 50% [매년 +10%p]  
(개정) 1차년도 10% → 2차년도 25% → 5차년도 70% [매년 +15%p]
- 초장기물 인센티브: (현행) 만기 "5년~10년 이하" 10%, "10년 초과" 20%를 이행실적 가산  
(개정) 만기 "5년~10년 이하" 30%, "10년 초과" 50%를 이행실적 가산
- 장기물 목표 : KOFR-OIS 거래의 20%는 만기 1년 이상으로 체결 (현행 유지)

## □ KOFR 기반 변동금리채권(FRN)의 발행 목표를 신설

- 은행권 KOFR-FRN 발행 목표비율을 매년 10%p씩 상향하여 '31.6월 50%까지 확대('26.6월, 금감원 행정지도 신규 도입)
  - \* (1차년도: '26.7월~'27.6월) 10% → (5차년도: '30.7월~'31.6월) 50% [매년 +10%p]
- 정책금융기관(산은, 기은, 수은)의 경우 은행권 목표비율보다 높게 '31.6월 65%까지 확대
  - \* (1차년도: '26.7월~'27.6월) 25% → (5차년도: '30.7월~'31.6월) 65% [매년 +10%p]
- '26년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시 KOFR 기반 거래실적 (OIS, FRN 등) 평가비중 상향('26.2분기, 한은)

## □ KOFR 기반 대출상품 신규도입

- 정책금융기관(산은, 기은)이 '26년 하반기 KOFR를 지표금리로 하는 대출상품을 **총 1조원 규모**로 신규 출시
  - \* 산은, 기은이 각각 5천억원 규모로 지방 중소기업·소상공인 등에 대한 단기 운전자금 지원 목적의 KOFR 대출 출시 준비중
- 시중은행은 '27년 상반기부터 KOFR 기반 대출 순차 도입 추진
- 「KOFR 기반 대출상품 출시 지원 TF」 운영\*(26.3월)
  - \* 금융위, 금감원, 은행연, 정책금융기관, 시중은행, 연구기관 등
- 「대출금리 모범규준\*」 개정 및 임직원 이해도 제고를 위한 안내자료 마련(26.6월, 은행연합회)
  - \* KOFR를 대출 지표금리에 포함, KOFR 대출실행내역 통지방식 추가 등
- KOFR 공시범위(현재 익일물)에 **과거평균 KOFR\*(30일, 90일)** 추가(→ '26.7월, 예탁원 「한국무위험지표금리 산출업무규정」 개정)
  - \* 은행권이 금리변동주기가 30일 또는 90일인 변동금리 대출에 활용하기 위해 요청

## 2 CD금리는 법상 중요지표에서 지정 해제

- 「금융거래지표법」상 중요지표에서 `30년말 CD금리 지정 해제
  - KOFR 활성화 행정지도 종료시점, 시장 내 CD금리 비중 추이 등을 감안하여 **'30년말 CD금리를 중요지표에서 해제**
  - CD금리 중요지표 해제 시점 및 자발적인 CD금리 사용 자제 등을 금융권에 상세 안내(각 금융협회 → 소속 금융회사)
- 외국인 투자자의 KOFR 기반 거래 확대 등을 위한 해외 IR 실시
  - 외국인 투자자가 파생상품거래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해 온 CD금리 대신 KOFR를 사용토록 홍보(26.하반기, 한은 등 관계기관 합동)

### 3 코리보 사용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

#### □ 은행권의 코리보 기반 신규대출은 원칙적 중단

- 코리보 사용비중 축소를 위해 은행권의 **코리보 신규대출을 '27.4월**부터 **원칙적 중단**(‘26.하반기 금감원 행정지도 신규 도입)

\* 기관간 협의가 추가 필요한 코리보 대출상품(예: 지자체·중진공 협약 대출 등)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'27.10월부터 중단

- 금융권의 코리보 사용현황 파악, 코리보대출 신규취급 중단 등을 지원하는 **실무TF** 구성(‘26.2분기, 금감원, 은행연, 코리보 취급은행 등)

#### □ 기존 코리보 기반 대출은 만기 연장시 대체 지표금리로 전환 유도

- '27.4월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기존 코리보 대출은 고객이 연장 희망시 **대체 지표금리**(예: 코픽스, 은행채 등)로 전환하여 계약체결

※ 코리보대출 감소 추이 등을 보아가며 추후 **코리보 산출중단 시점 결정**

### 4 코픽스에 대한 산출체계 점검을 선제적으로 강화

#### □ 코픽스 산출 및 승인체계에 대한 은행연합회 자체점검 강화

- 은행연합회(산출기관)가 코픽스에 대한 자체 점검을 **법상 중요 지표 수준으로 강화\***하여 분기별로 실시(‘26.2분기~)

\* 「금융거래지표법」상 점검사항(공시사항의 적정성·관리위원회 운영의 타당성 등)을 차용하여 자체 점검, 독립부서인 감사실의 검증 절차 추가 등

#### □ 은행들의 코픽스 관련 제반사항에 대해 금감원이 중점 점검

- 은행(기초자료제출기관)이 산출자료 정확성, 내부통제 적정성 등을 자체 점검하고, 그 결과를 금감원이 점검(‘26.4분기)

- 필요시 시정지도하고, 중대한 미흡사항 발견 시 현장점검 추진

※ 시장내 비중 등을 보아가며 **코픽스를 법상 중요지표로 지정 검토**

## IV. 향후 계획

◆ 관계기관 합동 협의체를 통해 「지표금리 개편방안」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, 추가 개선방안을 지속 발굴

\* 금융위, 한은, 금감원, 예탁원, 거래소, 은행연, 금투협, 연구기관, 은행증권 등 금융회사 등

구 분	조치사항	소관	시기
<b>1. 다양한 금융시장에서 KOFR 활성화를 가속화</b>			
<b>㉠ 이자율스왑(OIS) 시장 내 KOFR 활용 가속화</b>			
- KOFR-OIS 거래 목표비율 상향 등	행정지도 개정	금감원	'26.6월
<b>㉡ KOFR 기반 변동금리채권(FRN)의 발행 목표를 신설</b>			
- KOFR-FRN 연차별 발행 목표비율 신설	행정지도 신규도입	금감원	'26.6월
-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시 반영 점수 상향	내부기준 상향	한은	'26.2분기
<b>㉢ KOFR 기반 대출상품 신규도입</b>			
- KOFR 기반 대출상품 출시 관련 지원 TF 운영	TF 구성	금융위, 원, 은행연 등	'26.3월
- 대출 지표금리로서 KOFR 활용 근거 마련	모범규준 개정 등	은행연	'26.6월
- KOFR 공시범위 확대	내부규정 개정	예탁원	'26.7월
- 정책금융기관 KOFR 기반 대출 신규도입	상품 출시	산은, 기은	'26.하반기
<b>2. CD금리는 「금융거래지표에 관한 법률」상 중요지표에서 지정 해제</b>			
- 법상 중요지표에서 CD금리 지정 해제	금융위 의결	금융위	'30년말
- 외국인 투자자 대상 해외 IR 실시	IR 실시	한은 등 관계기관	'26.하반기
<b>3. 코리보 사용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</b>			
- 코리보 신규대출 중단 관련 지원 TF 운영	TF 구성	금감원, 은행연, 취급은행	'26.2분기
- 코리보 기반 신규대출 '27.4월 원칙적 중단	행정지도 신규도입	금감원	'26.하반기
<b>4. 코픽스에 대한 산출체계 점검을 선제적으로 강화</b>			
- 은행연, 산출 및 승인체계 자체점검 강화	절차 개선 및 시스템 개편	은행연	'26.2분기
- 금감원, 기초자료제출기관(은행) 중점 점검	점검 실시	금감원, 은행	'26.4분기
- 법상 중요지표 지정 여부 검토	금융위 의결	금융위	'27.상반기

## 참고1

## 주요국 지표금리 개혁 경과 및 활용 현황

- LIBOR 조작 사건 이후, 주요국은 시장 여건에 부합하는 실거래 기반 무위험지표금리(RFR)를 선정하여 새로운 지표금리 체계로 전환
  - 정책당국은 전환 과정에서 단계별 이행 로드맵을 수립·공표하고 'RFR 우선 사용 원칙'(RFR First Initiative)을 발표하여 전환 독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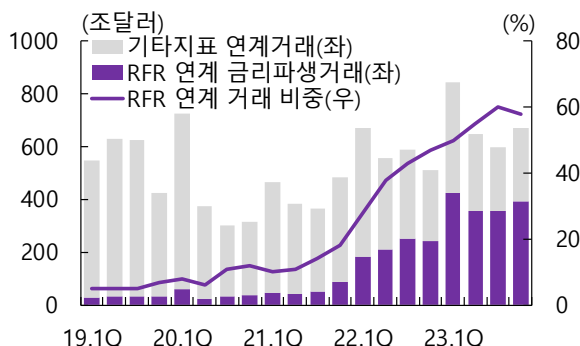
### 주요국의 지표금리 개선 현황

구분	국가	기존 지표	대체지표			
			지표명	성격	선정시기	산출기관
단일 지표 체계	미국	LIBOR	→ SOFR	국채담보 익일물 RP금리(RFR)	17.6월	뉴욕연준
	영국	LIBOR	→ SONIA	익일물 무담보금리(RFR)	17.4월	영란은행
복수 지표 체계	유로 지역	EONIA	→ ESTR	익일물 무담보금리(RFR)	18.9월	ECB
		LIBOR	→ 개선 EURIBOR	실거래·호가기반 금리	-	EMMI
	일본	LIBOR	→ TONA	익일물 무담보 콜금리(RFR)	16.12월	일본은행
		TIBOR	→ 개선 TIBOR	실거래·호가기반 금리	-	일본은행연합회
	한국	CD	→ KOFR	국채·통안채 담보 익일물 RP금리(RFR)	21.2월	예탁결제원
		CD	→ 개선 CD	실거래·호가기반 금리	-	금융투자협회

- 주요국은 지표금리 개혁 과정을 거치면서 RFR이 파생·현물상품 거래 전반의 핵심 준거금리로 안착
  - (파생상품) RFR 중심의 거래 표준화가 신속히 이루어지며 시장 내 핵심 준거금리로 조기에 정착
  - (현물상품) RFR 기반 변동금리부채권(FRN) 발행이 시장 관행으로 정착

- 대출시장에서도 RFR 활용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

RFR 연계 금리파생상품 명목거래<sup>1)</sup>



19.1Q 20.1Q 21.1Q 22.1Q 23.1Q  
 주: 1) USD, EUR, JPY, GBP, AUD, CHF, CAD, SGD  
 8개 통화상품 기준, '24년부터는 자료 미공시

자료: ISDA-Clarus RFR Adoption Indicator

주요국 RFR FRN 발행 비중<sup>1)</sup>

	비중 (%)						
	'18년	'19년	'20년	'21년	'22년	'23년	'24년
미 국	4.5	23.5	59.0	74.2	97.2	98.4	98.6
영 국	26.3	70.8	93.0	99.9	97.2	99.6	100.0
스위스	0.0	0.0	10.7	50.0	77.7	92.5	100.0

주: 1) 신규 발행 기준(국채·지방채 제외)

자료: Bloomberg

## 참고2

## 국내 주요 지표금리 비교

구분	KOFR	CD	코리보	COFIX
개념	○ 국채·통안증권을 담보로 하는 익일물(1일) RP금리	○ 시중은행이 발행한 만기 91일 (80~100일물 포함) CD의 발행수익률을 기반으로 산출한 금리 <sup>1)</sup>	○ 은행 간 단기자금거래시 적용되는 호가금리	○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지수 <sup>2)</sup>
법상 중요 지표 <sup>3)</sup>	○ 지정	○ 지정	○ 미지정	○ 미지정
정보 제공 기관	○ 총 9개 중개회사	○ CD 거래실적 상위 10개 증권사	○ 총 11개 은행	○ 총 8개 은행
산출 방식	○ 장외 기관간 RP 중개거래의 상·하위 5% 제거후 거래량 기준 가중 평균	○ 상·하 각 1개 수익률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산출	○ 상위 및 하위 각 3개금리를 제외한 나머지 제시금리 평균	○ 정보제공은행들의 자금조달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
산출 정보	○ 익일물 (법상 중요지표)	○ 91일물 (법상 중요지표) ※ 7·15일, 1·3·6·12개월물은 채권평가사가 별도로 정보를 제공	○ 1주, 1·2·3·6·12개월물	○ 신규취급액기준, 잔액기준, 신잔액기준 ○ 단기 코픽스
발표 일자	○ 익영업일 오전 11시	○ 당일 16시 30분	○ 익영업일 오전 11시	○ 신규취급액기준, 잔액기준, 신잔액기준 : 매월 15일 15시 ○ 단기 코픽스 : 매주 3번째 영업일 15시
공시 기관	○ 예탁결제원	○ 금융투자협회	○ 연합인포맥스 등	○ 은행연합회
주요 활용 분야	○ 이자율스왑 ○ 변동금리채권	○ 이자율스왑 ○ 변동금리채권 ○ 대출(기업대출 위주)	○ 대출(기업대출 위주)	○ 대출(주담대 위주)
특징	○ 실거래 기반 무위험지표금리 (risk-free rate)	○ 발행·유통 부족 → 전문가적 판단 비중 50% 상회	○ 무담보 호가금리	○ 은행의 실제 조달비용을 반영

1) 단계적 금리 산출방법(Waterfall)을 도입하여 적격거래, 인접 만기, 전문가적 판단을 단계적으로 적용

2) 주요 산출 대상 수신상품 : 정기에·적금, 상호부금, 주택부금, CD, RP매도, 표지어음 매출, 금융채 (신잔액기준은 기타예수금, 기타차입금, 결제성자금 등을 추가로 포함)

3) 「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금융위 의결을 통해 중요지표로 지정